

외암리 민속마을의 생태적 맥락과 장소성 연구

-수공간과 장소의 상호작용 및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성종상* · 이은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전통마을은 산과 물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동안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온 삶의 형태중 하나이다. 급격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품어 내려온 삶의 터에 대한 지혜를 구시대 의 유물 정도로 치부해 오면서 그 지혜들을 하나 둘씩 잃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전통마을이 긴 세월동안 이 땅에 맞도록 다듬어진 삶의 터로서 농축된 지혜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도구적 이성을 거부하며 감성적 직관을 기치로 펼쳐진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동안 마치 질풍노도वाद 같이 거의 모든 문화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어느 정도의 소강상태와 잠복기를 거친 요즘에 새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들은 '환경', '지역성', '생태' 등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실험과 모색과정에서 산고가 낳은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한 움직임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생태적 가치에로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공간에서 '생태'가 사회적·문화적인 측면까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공간에 대한 생태논리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마을 공간 속에 투영되어 있는 생태적 지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소형성의 근간이 되어온 물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마을에서 보여져온 시간에 따른 공간형성 논리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에 대한 적극적 활용 흔적이 남아있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중요민속자료 236호, 2000. 1. 7. 지정)를 연구 대상으로 마을공간의 내재된 생태적 특질과 문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통마을과 대상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수집된 자료의 확인을 위한 대상지 답사, 사진촬영 및 현지 주민 인터뷰가 병행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내부 물길의 상류주택으로만 통과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장소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현지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전해 내려져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물과 마을공간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주민 인터뷰는 총 두 차례(2005년 5월 7일, 2005년 9월 11일) 이루어졌으며, 대상은 현재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안이씨 상류주택 거주자에서부터 기타 성을 갖고 있는 서민주택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된 연구 방법은 기존의 문헌 자료와 주민 인터뷰, 현지 답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과 및 고찰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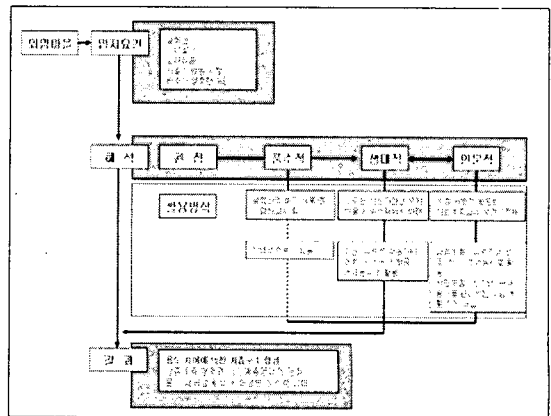


그림 1. 외암마을 장소성과 물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

III. 결과 및 고찰

1. 마을형성의 역사적 배경

1) 지리적 배경

외암마을은 설화산 동남부의 산록경사분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설화산에서부터 약한 사면을 이루는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가 입지하기 적합한 동고서저형의 지형면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 가까이에 취수를 할 수 있는 하천을 비롯하여 마을 내부에서도 얇은 샘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취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외암마을은 설화산을 주산으로 설화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끼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외암리 주변에는 5산(광덕산, 설화산, 송악산, 월라산, 면잠산) 5수(용추, 인곡, 반계, 역천, 온정)라 하여 외암선생의 시문집에서 표현되고 있는 경관요소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그와 같은 자연 경관들과 더불어 외암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돌각담은 마을이 지닌 독특한 경관으로 꼽을 수 있다. 돌각담의 재료인 호박돌들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마다 나온다고 한다.¹⁾ 외암마을은 표토층 하부에는 호박돌들이 가득 들어 있으며, 송화대 주변은 강모래 층이 1m 이상 된다고 함을 종합해 볼 때,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어 마을 전반적으로 지하수를 품고 있을만한 지반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외암리가 수해를 입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 이 사실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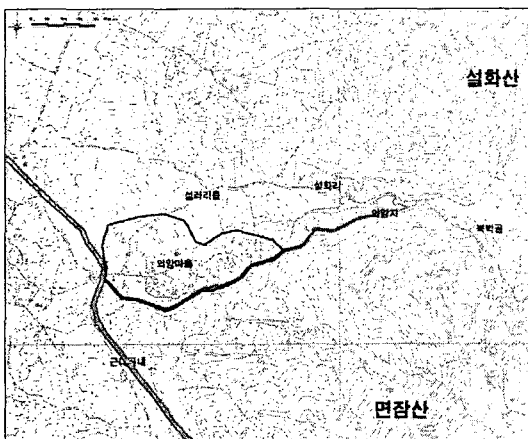


그림 2. 외암마을의 동고서저형의 입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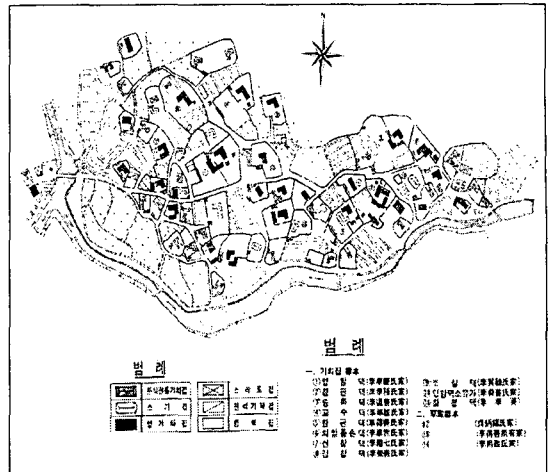


그림 3. 외암마을의 현재 모습 (출처:이왕기, 2002)

증해주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및 위계구조 형성과정

외암 선생이 입향하기 전 취락 형태에 대한 연구가 외암마을 관련 선행논문들에서 있어왔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약 500여 년 전부터 목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이후 강씨가 들어와 예안이씨가 입향하던 시기까지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배선씨(57세, 평생 거주)의 말에 따르면 그에 대한 흔적으로 외암리 동남쪽 북박골의 목씨의 묘가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그 묘소 터를 외지인(外地人)들이 탐하던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하며, 강씨는 현재 영암댁과 참관댁 자리를 중심으로 지냈다고 한다. 강씨는 본(木)이 진주로 현재 설화산 자락 설화리에 일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강씨가 외암마을에서 물러난 이후 예안이씨가 입향하였고, 지금까지 세도해 왔다. 외암마을은 잇마을에서 아랫마을로 확산된 양상인데 1단계로 외암사당과 종가댁, 당산목 주변이 형성되었고, 2단계는 참관댁, 송화대, 영암댁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수로 등이 300년 전에 조성되었다. 인공수로는 이득선씨와 인터뷰에서 외암묘소를 이장한 외암의 둘째 아들 이병(頤炳)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말에 의해 대략적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3단계는 약 200년 전으로 교수댁, 신창댁, 감찰댁 등이 형성되었고, 4단계는 약 100년 전으로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이 되었다. 여기에는 대중가가 최적 길지에 중심가옥으로 배치되고 소중가와 상류 주택이 차적지에, 그리고 외측에 노비집이나 다른 성씨들의 주택이 배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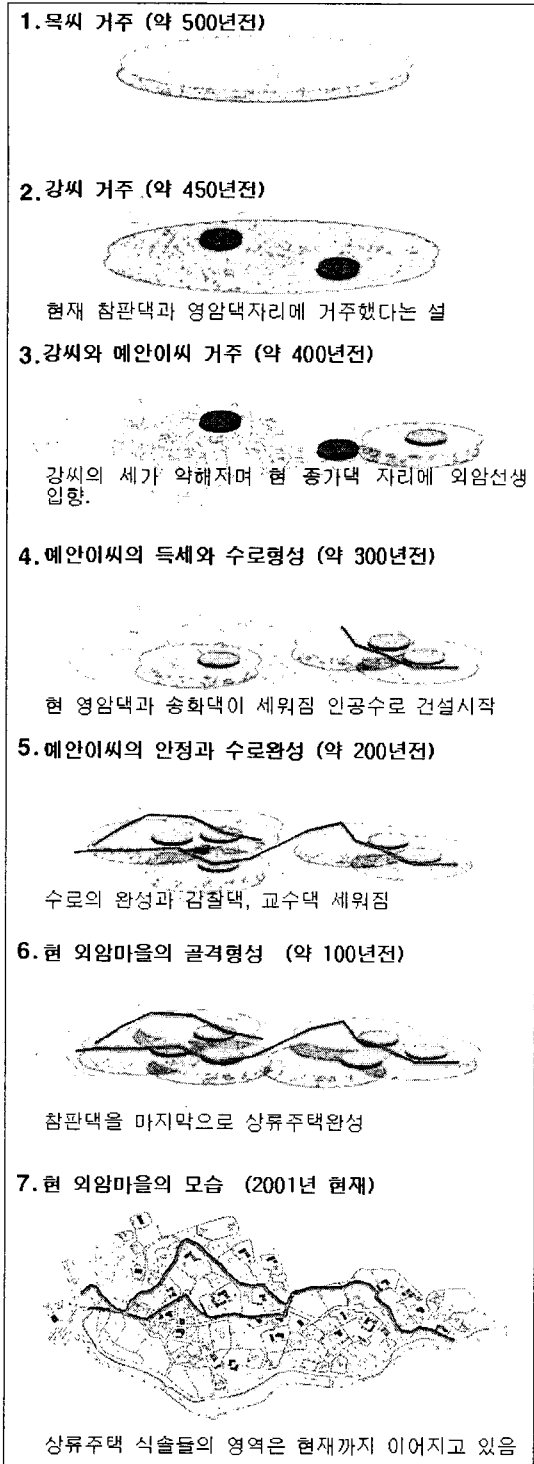


그림 4. 외암마을의 변천과정
(마을주민 인터뷰와 남승희, 2000을 바탕으로 작성)

었다. 이러한 형성단계는 외암마을의 반장 이배선씨(57

세, 평생 거주)의 면담 내용에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배선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은 큰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그 집안을 도와주는 식솔들이 주변에 자리잡고 내려왔다는 것과, 각각의 중심가옥 별로 동네 분위기가 다르며, 마을내의 위계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3) 샘과 우물을 중심으로 한 洞의 형성

마을의 상류 가옥들은 대체로 우물이 있어 왔다는 외암마을 민속해설가 양재영씨(30대, 3년간 활동)와 이배선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을 위계구조를 생각해 보면, 골 동(洞)자에서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파자(破字)풀이를 통해 해석해 보면 마을, 골의 의미로서 동(洞)은 같은 물을 쓰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외암마을의 상류 주택을 중심으로 각각의 집안에 취수원인 우물이 존재했다면, 각 집안과 관련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속해있는 집안에서 물을 얻어 쓰거나 물을 주거나 했을 것이며, 같은 마을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집에서 물을 가져다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중가덕을 비롯한 영암댁, 송화댁, 교수댁, 참판댁은 마을에 있어서 물을 중심으로 한 작은 핵이 되었고 핵을 중심으로 한 식솔들의 모임으로 인해 각각의 동(洞)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마을 형성과 물의 관계

1) 풍수와 지형·지리적 의미의 상관성

풍수적인 측면에서 외암마을을 접근할 때마다 주로 다루어지는 이야기로서 설화산의 화기와 마을 수로와의 관계이다. 설화산(雪華山)의 화(華)자는 불을 의미하는 화(火)와 상통하므로 설화산은 화기를 머금은 산이라는 것이 풍수지리적 통설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중환의 택리지에 기록된 설화산은 설라산(雪羅山)이었으며 이름이 구전되면서 설화산으로 변천되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름이 불(火)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세가 화성산이 아닐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화산을 볼 때, 설화산이 실제적으로 풍수적인 화성산(火星山)이라면 그 봉우리의 모양새가 불꽃과 같이 뾰족한 형국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의 관악산이 대표적인 화성산(火星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화산의 산세는 마을에서 문필봉(文筆峯)으로 불리



그림 5. 건축물 개보수 공사로 굴착시 볼 수 있는 바닥자갈의 모습

위질 정도로 산세가 곧고 높으며, 봉우리의 모양이 둥그스름하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목성(木星)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산의 형세와 유사하다. 화성산 자락은 예술인이 많고, 목성산 자락에는 문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풍수적 의미를 더해 보았을 때, 외암마을에 특히 선비, 문인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설화산은 화성보다는 목성(木星)에 가까운 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마을 논에 물이 짧은 것은 설화산의 화기(火氣) 때문이라기보다 지반 전체적으로 호박돌이 퍼져있어 배수가 빨리 일어나는 특성에 의한 것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설화산의 화기에 의해 가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근 지역의 화재의 빈도 역시, 풍수적 장치인 수로를 한 외암마을과 그렇지 않은 외암마을 이외 인근 마을에서 나타났던 화재빈도가 별 차이 없었음을 주민 이배선씨, 서정태씨(50대, 30년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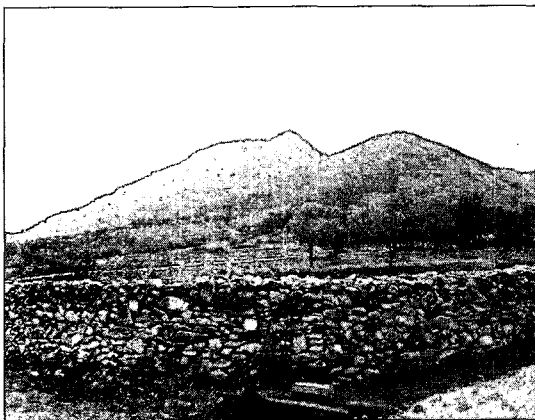


그림 6. 설화산의 목성(木星)형 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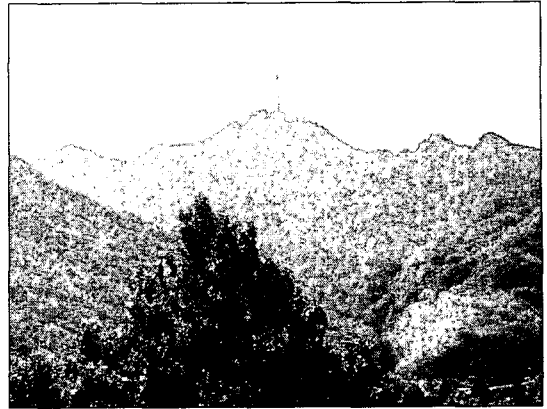


그림 7. 화성(火星)형 산세 (관악산)

설화리 거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상류가의 조경적 활용

마을 수로가 형성된 원인들 중 풍수적 의미가 상징적이었다고 하면, 실제적 의도는 상류 주택에서 조경용도로 수로를 끌어들이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참판댁과 종손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류 주택은 마을 수로를 이용한 집안정원을 가지고 있다. 각 정원마다 다른 형태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마을 수로의 물을 적극적으로 집안으로 끌어들여 정원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송화댁의 경우, 정원수뿐만 아니라 논에 물을 대는 용도까지 활용한 점은 다른 상류 주택과 다른 모습이다. 마을 주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마을 수로가 들어간 상류 주택의 집안사람들이 특히 정원조경에 관심이 많았었고 이러한 조경용도로써 적극적 활용행태로 미루어 보아 마을 수로의 여러 형성 동기 중 상류 주택의 조경용도의 비중이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8. 마을 수로의 조경적활용형태(상류주택)

상류주택	조경적 활용 형태		
	수로	연못	수로+연못
건재고택(영암댁)	-	-	○
교수댁	-	-	○
감찰댁	-	○	-
송화댁	○	-	-
종가댁	-	○	-
참판댁	-	-	-

외암마을 상류 주택 일가가 조경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문화해설가 양재선씨와 이배선씨의 말에 따르면, 특히 교수댁과 영암댁의 조경에 대한 경쟁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외암마을의 주출입구인 외암교 아래 반석에 “외암동천(巍岩洞天)”과 “동화수석(東華水石)”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외암동천은 이용찬서(李川瓚書)라고 작게 작자명이 쓰여 있으며, 이용찬은 예안이씨 20세손으로 건재 이옥렬의 셋째 아들로 건재(영암댁)家 사람이다. 동화수석은 이백선서(李伯

善書)라고 작게 작자명이 새겨져 있다. 이백선은 예안이씨 21세손으로 교수댁에 살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 두 인물은 서로 친구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외암마을을 칭송하는 글귀를 반석에 새기게 된 이유는 조경에 대한 두 집안간의 경쟁심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마을의 서민계층은 수로를 조경용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서민 주택군은 위치상 상류주택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흘러보낸 물을 받기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은 마을의 수로가 갖는 의미가 사회계층적이며, 신분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계층이 집안 내부에 수로를 들여가면서 조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로가 지나간 곳 위로 집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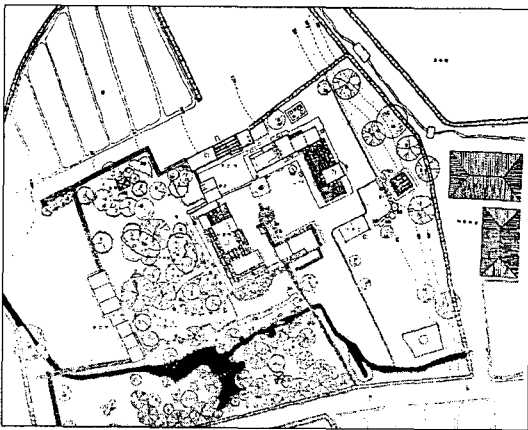


그림 8. 수로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암군수댁 조경 평면도 (유병림, 198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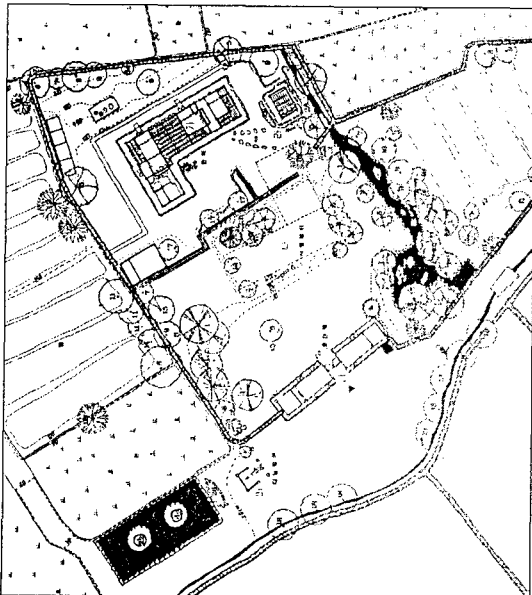


그림 9. 수로의 물을 활용한 교수댁 조경 평면도 (유병림, 198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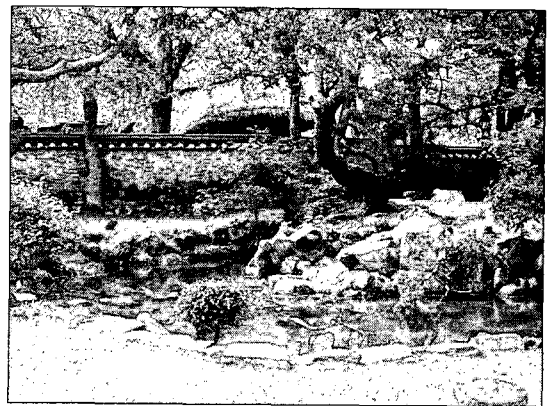


그림 10. 상류주택의 물 길 활용 예 : 건재고택(영암댁) 내부 조경 연못



그림 11. 반석위의 석각(石刻)-동화수석(東華水石), 외암동천(巍岩洞天)

을 경우에 한해 마당에 텃밭에 물을 대는 용도나 작은 빨래터로 사용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서민들이 조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 아니다. 서민들의 수로에 대한 조경용도로의 활용은 집 앞에 수로가 있을 경우 주변에 화초를 심어 가꾸는 정도로 활용해 왔다고 한다.

3) 수감(水監)제도와 천수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암마을은 배수가 빠른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작지에 물을 지속적으로 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논이 천수답이라는 점과 마을 내 수감(水監)이라는 직책을 두어 농경지에 물대는 것을 마을에서 관장하는 제도가 있어왔다는 점은 외암마을이 농경을 하기에 물이 넉넉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이윤필씨(43세, 평생 거주)와 이배선씨의 말을 따르면 현재는 70년대 초반 만들어진 외암방죽에서 눈에 물을 대었으나 그 수량이 넉넉지 않아 송악저수지 등지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봄철에는 물을 관리해야 할 정도 눈에 물대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한다. 한편, 마을 수로를 모내기철에 눈에 물을 댈 경우 활용한다고 한다. 송화댁의 물길은 마을 밖 설라리들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수로 갈래 중 송화댁 방향의 물길을 농경용 치수에 활용한다고 한다.



그림 12. 마을길 변 수로의 서민계층 활용 형태 : 빨래터

4) 사회적 계층과 상관성

전통마을에서 빨래터와 공동우물, 물레방아는 마을 주민들 간의 정보교환과 친분 교류의 장소였다. 외암마을 역시 빨래터와 공동우물이 물레방아가 존재하였으나 그 장소적 의미가 마을 계층 구조에 의해 다른 마을과 달리 보여지고 있다.

외암 마을의 빨래터는 크게 세 곳으로서, 마을 수로가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마을 중앙의 빨래터 한 곳과 마을 하천변의 빨래터로서 참관 댁 앞에 한 곳, 마을 입구 반석에 한 곳 존재했다. 주로 마을 중앙의 빨래터는 주변 상류 주택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터가 넓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로 상류 주택과 관련한 사람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곳으로서 마을 내 일종의 고급 정보들이 교환되었던 장소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마을 하천변에 있었던 빨래터는 마을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이 마을로 시집와 살고 있는 이안숙씨(54세, 34년째 거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하천변 빨래터는 마을의 서민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하천변에서 서민들의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로서 하천변 빨래터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마을의 식수원은 주로 샘물과 우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상류주택은 거의 집안에 샘물이나 우물을 갖추고 있어 사적인 식수원으로 활용하였지만, 서민들이 거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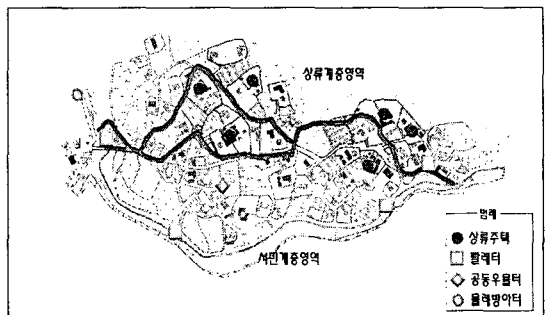


그림 13. 외암마을의 수공간에 의한 계층적 구조와 핵심 지점

표 2. 외암마을 계층별 수로 활용 방식

	집과의 관계	공간 형식	주 용도
상류주택	집안으로 통과	수로, 언뿔 등	조경용 (관상, 관개)
서민주택	대부분 집밖 담장 옆으로 통과	수로	빨래, 허드렛물, 일상용도 등

는 마을은 그렇지 못하였다. 마을 남측에 공동우물이 있어 서민들이 그 샘물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상수도가 연결된 지금은 그 쓰임새가 사라져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샘이 마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배선씨의 말에 의하면 경작을 하는 물은 부족했지만, 식수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며, 주로 마을 물길은 배수로, 허드렛물 정도로 사용했고 식수로 쓰기에는 물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식수 때문에 마을 물길이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마을 물의 쓰임을 공동체적 측면에서 볼 때 계층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할 뿐 물길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활동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결론

본 연구는 다른 민속 마을과는 달리 수공간을 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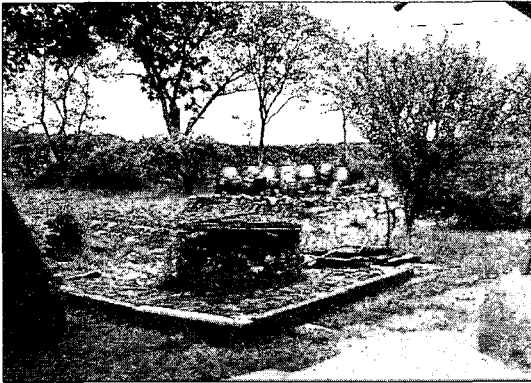


그림 14. 상류 주택 내부의 우물 : 감찰댁 뒷마당 우물



그림 15. 상류 계층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마을중앙부 빨래터의 흔적 (파고라 전면부에 있었음)

으로 활용한 모습이 남아있는 외암리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수공간의 형성과 그에 따른 장소적 의미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공간의 형성에 있어서 풍수는 상징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외암마을의 수로는 상류주택의 조경용도와 농경치수가 일차적인 목적으로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마을 내 수공간과 그 이용은 마을내부의 사회계층적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셋째, 상류계층과 서민계층의 이용 영역상의 구분은 자연스럽게 정보교환의 계층화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마을의 계층영역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암마을의 사회 계층적 공간구조와 물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그것이 우리 전통마을에 있어서 하나의 공간 위계질서를 형성하였으며 마을의 장소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전통공간에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정원, 원림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마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생태적이면서 물을 구심점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이 가지는 의미와 생태적 함의를 고려해볼 때, 물은 마을 공간구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 외암리의 사례는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수공간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기억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형성 연대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추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간과 공간간의 상호작용과 그 의미를 해석해 내는 작업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주 1. 김효정 할아버지 (70대, 평생거주), 이윤필씨(40대, 평생거주), 이배선씨(57세, 평생거주)의 인터뷰 내용.

인용문헌

1. 김남춘·김남미(1996) 외암리 민속마을의 취락경관과 외부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30 : 653-669.
2. 남승희·김용기(2000) 외암리 민속마을의 수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 : 60-69.

3. 성종상 (2003)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4. 성종상 (2005) 고산윤선도 원림의 수경연출 : 생태적 사유과 기법. 전통생태세미나 발표논문.
5. 신상섭(2004) 전통정주지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 : 27-38.
6. 심혜자·최기섭 (1993) 전통취락의 상징적 공간구성. 응용지리 16 : 89-140.
7. 유병립 외 2인 (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8. 아산군 (1983) 아산군지 상. 하. 아산군.
9. 이도원 (2004) 전통마을 경관요소들의 생태적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10. 이도원 외 (2004) 한국의 전통 생태학. 사이언스북스.
11. 이왕기 외 2인 (2002) 외암 민속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12. 한필원(1992) 전통 농촌마을에서 물의 의미. 대한건축학회 165 : 53-57.
13. 한필원(2004)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1. 2. 북로드.